

佛系카나다 文學의 特性에 관한 小考

姜 熙 成

Petite etude sur les caracteristiques de la littérature canadienne française

KANG, Hee-sung

<目 次>

- I. 序 論
- II. Canadien français라는 type의 形成
- III. Les Anciens Canadien에서 Menaud, maître-draveur에 이르기 까지
- IV. 結 論

Résumé

Au Canada, on parle français comme langue officielle, mais le type canadien français diffère du type français. Après avoir brièvement examiné la formation du type canadien français, nous allons essayer de dégager quelques traits caractéristiques de sa littérature.

I. 序 論

17世紀初 캐나다에 植民地를 建設하고 Nouvelle-France를 세우려는 꿈을 實現하기 爲하여 한 世紀 半 동안을 開拓者로서 살아온 캐나다의 프랑스인들은 이미 典型的인 프랑스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어색할 정도로 변모하여가고 있었다.

또한 1763年 Paris條約 以後 Canadien français는 英國의 被征服 民族으로서 政治的 또는 文化的으로 프랑스와의 關係가 오랜 세월 斷絶된 狀態下에서 살아 오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佛語가 Montesquieu, Voltaire, Rousseau 등의 筆致에 依하여 쏠 구라파를 뒤흔들던 때에 Canadien français는 英語圈 社會에 둘러싸여 그들의 文化的 遺産인 宗教와 傳統, 慣習과 言語를 外部로 부터의 영향 내지는 威脅에서 固守하기 위하여 鬭爭 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成長하여온 Canadien français의 文學은 言語의 共通性을 지녔다고 하여 단 순히 프랑스 文學에 포함시키기는 힘들다. 本論文에서는 우선 프랑스인이 어떻게 Canadien français라는 type으로 變形되어 가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그 文學에 있어서의 特色을 考察하기 위하여 小說을 중심으로 몇몇 代表作들을 概括的으로 다루어 보려한다.

Ⅰ. Canadien français라는 type의 形成

프랑스인 Samuel de Champlain¹⁾이 Québec에 植民地를 건설한 이후 1763년 Paris 條約에 의하여 植民地의 統治權이 英國으로 넘어가게 되기까지, 캐나다를 統治하여온 프랑스로부터의 植民地人들은 프랑스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며 그들이 開拓한 캐나다를 Jacques Cartier²⁾가 이름 붙인대로 Nouvelle-France 또는 Neuve-France라 불렀다. 사실 캐나다의 建設者로서의 긍지를 지닌 初期 植民地人들은 그들의 祖國인 프랑스와 같은 또 하나의 새로운 프랑스를 新大陸에 세워 보려는 布望에 부풀어 있었다. 이들 初期 植民地人들의 身分 및 社會를 캐나다史 研究家인 Lionel Groulx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ppartiennent à toutes les classes sociales, composent déjà une petite société bien équilibrée: gens du sol, soldats, bourgeois, seigneurs et nobles.»³⁾

그들중 특히 農民들은 카톨릭教會에 依하여 信仰이 두터운 사람들만 嚴選하여 보내졌기 때문에 住民의 多數가 농민이었던 植民地의 宗教는 카톨릭 一色이었다. 18世紀初에 캐나다를 旅行한 한 外國人 Pierre Kalm은 식민지人들의 信仰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La religion du Canada est la religion Catholique Romaine, aucune autre n'y est tolérée. Il est admis par tous ceux qui ont voyagé en France, que le Français du Canada est plus fervent catholique que son cousin d' Europe.»⁴⁾

오늘날까지도 카톨릭情神은 Canadien français의 精神生活面에 있어서 主軸이 되고 있지만 이들의 굳은 信仰生活은 개척기의 모든 難關을 克服할 수 있게 한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開拓期の 농민들은 廣大한 土地를 勞動力이 부족하여 개간하지 못할 정도로, 고되기는 하지만 바쁜 생활을 하였는데 노동력은 富를 蓄積할 수 있는 가능성과 正比例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勞働者를 구하기란 극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 植民地人들은 農機具를 만드는 일에서 부터 집을 짓고 천을 짜는 일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일을 그 자신들이 해결하여야 되었고 이에 따라 강인한 생활력은 물론 技能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식민지인들은 모든 分野에 걸쳐 한사람 한사람이 농민인 동시에 技能工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을 가리켜 Lionel Groulx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Isolés sur leur domaine, obligés de tout tirer de leur industrie, les Canadiens acquièrent à un rare degré l'habileté manuelle, l'ingéniosité mécanique.»⁵⁾

地平線으로 둘러싸인 마을과 마을 사이의 交通의 不便, 航海가 不可能한 긴 겨울 동안 프랑스로부터의 孤立 등은 식민지인들에게 外部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

1) Samuel de Champlain (1567~1635): 旅行家이며 植民地 開拓者로서 Henri IV를 說得하여 Québec에 식민지를 建設하였으며 1633年 식민지의 總督으로 任命되었다.

2) Jacques Cartier (1491~1557): 프랑스의 航海家로서 1535年 François I의 이름으로 캐나다를 探險하였다.

3) Groulx, Lionel, Histoire du Canada français depuis la découverte, Montréal, L'Action nationale, 1950, p. 82

4) Kalm, Pierre, Voyage dans l'Amérique du Nord, Montréal, Berthiaume, 1960, p. 36.

5) Groulx, Lionel, La naissance d'une race, Librairie de l'action canadienne-française, 1960, p. 239.

결하는 獨立精神을 또한 길러 주었다.

그리고 毛皮의 去來, 內陸探險, 18世紀에 접어들면서 빈번 하였던 英佛間의 衝突, 聖職者들의 傳教活動 등은 인디안들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갖게 하였으며 인디안들을 통하여 식민지인들은 아직도 미숙한 自然環境에 適應하는 方法을 배우게 되었다. Pierre Kalm은 인디안과의 接觸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Chose curieuse ! Tandis que beaucoup de nations imitent les coutumes françaises, je remarque, qu' ici, ce sont les Français qui, à maints égards suivent les coutumes des Indiens avec lesquels ils ont des rapports journaliers. Ils fument, dans des pipes indiennes, un tabac préparé à l'indienne et portent jarrettières et ceintures comme les Indiens. Sur le sentier de guerre, ils imitent la circonspection des Indiens; de plus, ils leur empruntent leurs canots d'écorce et les conduisent à l'indienne; ils s'enveloppent les pieds avec des morceaux d'étoffe carrés au lieu de bas et ont adopté beaucoup d'autres façons indiennes.»⁶⁾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 오면서 캐나다의 프랑스인들은 구라파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思索的이고 理論的이기 보다는 實利的인 경향으로 變하여 갔다. 初期 植民地인들이 根本的으로 프랑스인들의 慣習 내지는 精神狀態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면, 캐나다에 뿌리를 박고 累世代를 新大陸의 自然環境에 적응 하여온 植民地人들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type을 形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구라파인이라기 보다는 美大陸人(Américain)이며 미대륙인이라기 보다는 Canadien이었다.

그러나 1763年 캐나다가 英國에 征服 당하자 Nouvelle-France의 꿈은 사라지고 政治的인 差別로 因한 經濟的 貧困과 屈辱의 生活이 시작된다. 被征服者로서의 Canadien은 이제 Canadien이 아니라 Canadien français이다. 프랑스인의 後裔들로만 구성되었던 캐나다에 앞으로 Canadien Aanglais라 불러야 할 征服者인 英國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被征服者들에게 카톨릭教 대신 英國國教(Anglican Church)를, 佛語教育 대신 英語教育을, 프랑스法 대신 英國法을 따를 것을 強要한다. Canadien français들은 無知 속에서 蒙昧하게 살아가는 茫정 英語로 行하여지는 모든 教育을 拒否하고 그들의 카톨릭 教會를 중심으로 더욱 굳게 뭉친다. 결국 英國의 同化政策은 英佛間의 分裂만을 더욱 深化시키고 失敗로 끝났으며 끊임없는 revendication과 투쟁을 통하여 1867年 Confédération의 실현을 보게 된다. 일부의 愛國的인 熱血青年들은 希望찬 未來에 대하여 흥분 하는가 하면, 일부의 農民들은 그들의 傳統을 固守하여 온것과 올타리로 둘러싸인 耕作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려 한다. 100여년간의 被征服 生活은 대부분이 농민들로 구성된 Canadien français들에게 또 하나의 變化를 가져다 주었으니 그들은 《ancien Canadien》들의 強靱한 意志와 獨立精神을 저버리고 個人主義와 消極性에 젖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ancien Canadien》들의 勇氣와 開拓精神을 잊어가는 깊은 世代를 爲하여 Philippe Aubert de Gaspé는 《Les anciens Canadiens》을 쓰기 시작한다.

6) Kalm, Pierre, op. cit., p. 193

Ⅲ. 《Les anciens Canadiens》에서 《Menaud, maître-draveur》까지

1. Les anciens Canadiens

1786年 Saint-Jean Port-Joli에서 태어난 Philippe-Aubert de Gaspé는 1759年 英國人들과의 戰爭 때 폐허가 된 大邸宅 자리에 세워진 보잘것 없는 한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후 法學공부를 하고 Québec市 職員이 된다. 그러나 복잡한 訟事に 걸려들자 고향으로 隱退하여 자녀교육에 專念하다가 74歲의 고령에 《Les anciens Canadiens》을 쓴다.

英國人 archilald Cameron de Lockeill과 Saint-Jean-Port-Joli 태생인 Jules d' Haberville은 Séminaire de Québec에서 공부한다. 이들은 d' Haberville의 집에서 함께 放學을 보내며 Archibald은 이 地方의 風習과 傳說 그리고 民謠 등을 배운다. 그러나 植民地 征服戰爭이 일어나자 이들은 서로 敵陣에 서게 된다. 英國軍 司令官 Wolf의 命令에 의하여 Archibald은 d' Haberville家 邸宅에 불을 지른다. 戰爭後 Jules의 누이동생 Blanche는 그녀의 同族에게 피를 흘리게 한 Archibald의 請婚을 拒絶하고 Archilald은 英國女子와 결혼한다.

Confédération이 成立되기 4年前인 1863年 출판된 이 小説은 캐나다에서 佛語로 쓰여진 最初의 小説로 作家로서의 修練이 전혀 없는 de Gaspé가 어려서 부터 傳說的으로 들어온 1760年の 전쟁과 당시의 風習들을 “이야기體”(récit)로 엮어나간 것이다. 小説 가운데에서 전쟁의 慘狀과 英國인들의 殘虐性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단순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하나의 證言으로 들린다. 오랜 은퇴생활중 地方民들과의 접촉에서 작가가 직접 보고 들은 農民들의 民俗, 祝祭, Chanson 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지루함이 없을만큼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며 특히 民俗學的인 資料로도 그 가치를 인정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de Gaspé가 74歲의 高齡에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 하였다는 것과 작가가 monsieur d'Egmont이라는 作中人物의 이름을 빌어 펼쳐 나아가는 한 영혼의 외침에 있다. 孤獨한 은퇴 생활에서 社會의 變遷을 靜觀하던 de Gaspé는, 安逸과 無事主義에 빠져 現實과의 妥協에만 만족하려는 젊은이들의 態度를 痛歎한 나머지 《ancien Canadien》의 후손으로서의 矜持와 使命感을 갖도록 呼訴한다.

프랑스에서는 寫實主義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浪漫主義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小説에서 作家는 적어도 《Uu roman tout canadien par le style》⁷⁾을 쓰고싶어 하는데 de Gaspé가 말하는 이 《style》은 바로 캐나다人的 生活方法(style de vivre)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作品의 文體와 語調는 비록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가들을 模倣한 것 같이 보이나 1760年代의 戰役을 회상하며 危機에 直面한 祖國앞에 울분을 토로 할 때 그의 태도는 眞摯하다. 作家는 Nouvelle-France가 征服當한지 다만 28년 후에 出生하여 被征服 民族의 쓰라림을 맛보며 살아온 한 Canadien의 友언으로서 이 소설을 후세에 전하고 싶어 한다.

1763年の 敗北에 관하여 말하는 de Gaspé에게서 우리는 《style canadien》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被征服民族의 한사람이지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작가이지만, 民族의 矜持를 잃지 않고 붓을 들고 일어서는 그의 態度에서 우리는 또한 《style canadien》이 무엇인지를 느낀다.

7) De Gaspé, Philippe-Aubert, Les anciens Canadiens, Montréal, Fides, 1967. p. 17.

Confédération이 Canadien français의 政治的인 平等은 인정하였으나 征服期間中 모든 經濟權을 掌握한 Canadien anglais 앞에서의 經濟적인 劣勢는 해결하여 주지 못하였다. 先着開拓民으로서의 自負心과 矜持도 없이 Confédération이 갖어다 주는 當然한 權利의 回復앞에 흥분하거나 만족하는 민중들에게 de Gaspé는 民族의 覺醒을 촉구한다.

《Vous avez été longtemps méconnus, mes anciens frères du Canada! Vous avez été indignement calomniés. Honneur à ceux qui ont réhabilité votre mémoire! Honneur cent fois honneur à notre compatriote, M. Garneau, qui a déchiré le voile qui couvrait vos exploits! Honte à nous, qui au lieu de fouiller les anciens chroniques si glorieuses pour notre race, nous contentions de baisser la tête sous le reproche humiliant de peuple conquis qu'on nous jetait à tout propos! Honte à nous qui étions presque humiliés d'être Canadiens! Confus d'ignorer l'histoire des Assyriens, des Mèdes et des Perses, celle de notre pays états jadis lettre close pour nous》⁸⁾

作家가 當時 英國人들의 殘忍한 放火와 《Plaine d' Abraham》의 決戰을 묘사할 때 그의 激情앞에 우리는 Napoléon III의 獨裁에 抗拒하는 Victor Hugo를 연상한다. 그러나 Hugo가 그의 同族앞에 일시적인 激忿을 표한다면 de Gaspé는 100년간 누적되어온 정복자에 대한 울분을 토한다. 한마디로 프랑스와는 政治的 與件이 전혀 다른 Canada français의 小説은 그 出發부터 參與文學으로서의 性格을 띤다. 小説을 民族魂의 反響(reflet de l'âme du peuple)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소설의 美學的 價値보다도 그 社會性(la portée sociale)에 관심을 갖게 되며 프랑스 소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獨特한 《style canadien》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Philipp-Aubert de Gaspé 이후 同類의 많은 作品들의 氾濫을 보게 되는데 20世紀初에 접어들어 출현하게 되는 Louis Hémon의 《Maria Chapdelaine》은 캐나다에 처음으로 寫實主義를 도입한다. 小説의 形式面에 있어서의 發展에 큰 意義를 갖는 이 作品은 캐나다에 체류하다 사망한 한 프랑스인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을 끈다.

2. Maria Chapdelaine

1883年 프랑스의 Brest에서 出生한 Louis Hémon은 Lycée Louis-le-grand을 나온 뒤 法學을 공부하나 官吏가 될것을 포기하고 旅行과 文學活動에 專念한다. 그는 오랫동안 London에 체류하다가 1911年 Montréal에 와서 Canada français의 風習을 연구하기 위하여 여러 地方을 여행한 뒤 Péribonka의 한 農場 농부로 일한다. Hémon은 그곳의 풍토와 농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Maria Chapdelaine를 준비한다.

Maria Chapdelaine는 Péribonka의 開拓農民 Samuel Chapdelaine의 딸이다. Mraria를 사랑하는 François Paradis는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겨울 祝祭 기간중 北國의 酷寒을 무릅쓰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일터로 부터 Maria를 찾아 오다가 中途에서 凍死한다. Maria는 教區 主任神父(Curé)의 위로를 받고 슬픔을 이겨나가나 새로운 講婚者를 擇하지 못하고 주저한다. Eutrope Gagnon과의 결혼은 그녀에게 고된 개척민의 생활을 안겨줄 뿐이다. Lorenzo Surprenant과의 결혼은 美國에 가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Maria의 어머니의 죽엄은 그녀에게 Eutrope를 擇하게 한

8) *ibid.*, p. 162.

다. 어머니의 시체 옆에서 밤샘 (la veillée du corps)을 하는 동안 그녀는 祖上의 뼈가 묻힌 祖國의 부름을 듣기 때문이다.

이 小說에서 우리는 우선 寫實主義에 依하여 세련된 Hémon의 技巧을 인정하게 된다. Émile Zola가 鑛夫들의 生活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직접 坑道에 들어가 보고 광부들의 用語 하나 하나를 記錄 수집 하였다는 말과 같이 Hémon도 Péribonka 농민들의 生活을 記述함에 있어서 無知한 농민들의 對話⁹⁾ 한마디 한마디에 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Canada français의 농촌 분위기를 再生시킨다.

프랑스인에 의하여 그들의 言語로 쓰여졌으면서도 寫實的인 描寫에 忠實한 나머지 프랑스인에게는 일종의 exotisme 마저 느끼게 하는 이 作品은 形式的인 면에 있어서 프랑스 사실주의 技法을 따랐으며 표면적으로는 개척농민들의 生活習俗을 묘사한 作品으로 보이나 그 形式 속에 內包되어 있는 內容은 Canadien français의 內面生活에 있어서 하나의 強迫觀念 같이 붙어 다니는 英系社會의 經濟的인 壓迫에 대한 抵抗意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Maria Chapdelaine》는 de Gaspé의 《style canadien》을 繼承한 것이라 본다. Maria는 Canadien이니 Canadien français니 하는 정치적인 畛계가 풍기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Maria는 그녀가 生을 받은 《le pays de Québec》¹⁰⁾ 만을 알려 하며 그녀가 Québécoise인 것만을 意識한다.

보잘것 없는 한 시골 女性이지만 將來가 約束된 安逸한 生活을 포기하면서 까지 祖上이 묻힌 땅을 떠날 수 없으며 苦難을 감수 하려는 Maria의 勇氣와 意志는 한 Canadienne française의 애국심을 보여준다. 《Les anciens Canadiens》에서 들을 수 있는 激烈한 語調와 감탄사들과는 대조적으로 Maria의 한마디 한마디는 冷徹하면서 淡淡하다.

《Nous sommes venus il y a trois cents ans, et nous sommes restés. Ceux qui nous ont menés ici pourraient revenir parmi nous sans amertume et sans chagrin, car s'il est vrai que nous n'ayons guère appris, assurément nous n'avons rien oublié. [...] autour de nous des étrangers sont venus qu'il nous plaît d'appeler des barbares; ils ont pris presque tout le pouvoir; ils ont acquis presque tout l'argent; mais au pays de Québec rien n'a changé. Rien ne changera, parce que nous sommes un témoignage. De nous-mêmes et de nos destinées nous n'avons compris clairement que ce devoir-là: persister... nous maintenir... Et nous nous sommes maintenus, peut-être afin que dans plusieurs siècles encore le monde se tourne vers nous et dise: «ces gens sont d'une race qui ne sait pas mourir...»¹¹⁾

Maria는 그녀의 祖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意識하고 있으며 그녀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전통을 존중할 줄 안다. 어떠한 外的인 영향도 그 여인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Maria는 민족의 장래에 굳은 信念을 갖고 있기에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갖었다. Hémon은 그의 明哲하고 注意깊은 觀察力으로 한 Canadienne française의 심정을 (l'état d'âme) 숨김없이 과 헤쳐 보여준다. 簡潔하고 平易한 文體에 依한 reportage 形式의 이 小說은 作家의 藝

9) 낱말에 있어서 écurveux(écureuils), icitte(ici), ouais(oui) 등의 barbarisme, 캐나다에서는 貨幣單位로 dollar를 쓰는데 농민들은 piastre를 使用하는 등의 archaïsme, Pas pire(pas mal), Il mouille(Il pleut) 등의 incorrection 과 獨特한 生活樣式 및 農事方法 등에서 생겨난 rang과 같은 néologisme de sens 등을 작품가운데에 그대로 표현한다.

10) Hémon, Louis, Maria Chapdelaine, Paris, Bernard Grasset, 1954, p. 241.

11) Ibid., pp. 241, 242

術家로서의 솜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形式과 內容에 있어서 Canada français 作家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여 주었는데 이 소설에서 깊은 感銘을 받은 Félix-Antoine Savard는 Menaud, maître-draveur를 쓴다.

3. Menaud, maître-draveur

Charlevoix의 Clermont 教會創設神父(Curé-fondateur)인 生存作家 Félix-Antoine Savard는 어려서 부터 放學 동안을 산과 숲 속에서 지나며 自然을 벗하고 자라다 神父가 된 뒤 開拓地의 伐木人夫들과 農民들 틈에 끼어 司牧生活을 하면서 1936年 《Menaud, maître-draveur》를 내어 놓는다.

Draveur¹²⁾生活로 늙은 Menaud는 어느날 한 英國人技士의 訪問을 받는다. 그는 Menaud의 協助를 請하나 여러차례 拒絶을 당한 끝에 겨우 承諾을 받는다. Menaud는 draveur들을 모집하고 그의 아들 Joson과 함께 산으로 떠난다. 그러나 危險한 激流에서 作業中 Joson이 목숨을 잃는다. 悲痛에 잠긴 Menaud에게, 지금은 英國人 地主들의 앞잡이로 轉落한, Marie의 約婚者 Délié가 危脅的인 態度로 結婚을 독촉한다. Menaud의 怨怒는 폭발하여 發狂으로 끝난다.

小說이라 하기 보다는 하나의 敘事詩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Roman-Poème이라 할 수 있는 이 作品에서 우리는 知性人으로서의 Mgr Savard와 詩人으로서의 그의 兩面性에 접하게 된다. Menaud의 딸 Marie가 《Maria Chapdelaine》를 소리내어 읽는 場面으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그 소설의 한 句節을 귀담아 들던 Menaud는 갑자기 讀書를 멈추게 하고 自身이 한 句節을 되풀이하여 외운다.

Une race qui ne sait pas mourir ! Voilà maintenant que cette parole flambait dans l'humble maison comme un feu dans la clarière du printemps. Avec ferveur Menaud répéta: 《Une race qui ne sait pas mourir !》¹³⁾

프랑스와 영국을 完全히 이해하고 있는 Louis Hémon은 Canadien français는 永遠히 存續하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 보았으며 Maria Chapdelaine를 民族的 豫言者로 만들었던 것이다.

Maria Chapdelaine의 續編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이 作品에서 作家는 Menaud라는 作中人物을 통하여 한 Québécois의 變遷을 보여준다. 政治的인 自由를 누린다고 하지만 英國資本家들의 너무나 큰 經濟的인 勢力앞에 Québécois들의 祖上傳來의 遺産인 土地는 점점 浸蝕당하여 들어가고 그들이 主人이던 땅 위에서 所有權을 빼앗긴채 苦勞살이를 하여야 하는 非理를 Menaud는 배격한다. 그는 이 땅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Tel était le mot d'ordre venu du sang, tel l'appel monté de la terre, qui, toute, dans la grande nuit de printemps, clamait: 《Je t'appartiens! Je t'appartiens! par le droit des morts dont je suis le reliquaire sacré, par tous les signes de possession que, depuis trois cents ans les tiens ont gravés dans ma chair!》¹⁴⁾

12) draveur는 木材들을 解氷期에 산에서 끌어내러 江으로 運搬하는 人夫들을 말하는데 지금은 作業이 기계화 되어 이 職業은 없어진 Canada français의 néologisme.

13) Savard, Félix-Antoine, Menaud, maître-draveur, Montréal. Fides. 1963, p. 13.

14) Ibid., p. 71.

祖上의 뼈가 묻힌, 유골함과 같은 땅을 잃는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모욕이요 삶을 포기하는 일이다. 삶을 포기하는 마당에 自由가 무슨 아랑곳이나? 자기의 땅을 지킨다는 것은 Mgr Savard에게는 生存權의 問題이다. 양보와 협상을 통하여 延命을 위한 한 뼉의 땅에 만족하는 것은 자기의 自由를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이다.

«Etre libre, cela ne se bornait pas à dire: «Je fais à ma tête chez moi. Je suis roi et maître de quelques arpents de terre sous le soleil du bon Dieu.»

Non! être libre, c'était partout où l'on va dans le pays, sentir, sous ses pieds, le son de la terre répondre aux battements de son coeur, c'était entendre partout la voix du sol, des bois, des eaux dire :

«Je t'appartiens à ta race et je t'attends!»

Etre libre, c'était goûter dans l'air ce qu'on goûte en mangeant le pain de son blé.

Etre libre, c'était en quelque endroit qu'on allât où les pères étaient allés, sur tous les visages reconnaître quelque chose du visage des siens, dans les moeurs, quelques traits de ses moeurs; c'était voir toute porte s'ouvrir, c'était entendre dans sa langue:

«Entrez! vous êtes chez vous!»¹⁵⁾

協商을 거부하고 Menaud는 투쟁을 계속하나 물밑듯 밀어 닥치는 외국인들의 金力앞에 그의 힘은 너무나 弱하다. Menaud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Joson의 그림자가 떠오른다. 이러할 때 Joson이 있었으면 ...Joson은 하나의 propitiatoire에 불과 하였던가? 敗北感과 Joson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因하여 失意에 빠진 Menaud 앞에 Délié가 나타나 말한다.

«Les étrangers auront ce domaine; et moi j'en aurai la garde...»¹⁶⁾

이 背信者 앞에 Menaud의 忿怒는 터지고 理性을 잃은 Menaud는 미치고 만다. 그의 發狂을 지켜보는 옛 친구 Josime는 말한다.

«Ce n'est pas une folie comme une autre! C'est un avertissement.»¹⁷⁾

事實 Menaud의 發狂은 自由를 주고 그 代價로 生存權을 박탈하는 Québec의 矛盾된 現實에 대한 하나의 “警告”인 것이다. 그 “경고”는 모두에 대한 “경고”이다. 同族들에 대하여는 irredentisme이요 英系社會에 대하여는 강력한 revendication인 것이다.

이 作品에서 우리는 Maria Chapdelaine의 冷徹함과 침착성을 찾아보지 못한다. 詩人의 靈魂을 타고난 Mgr Savard는 draveur의 활동무대인 大自然의 묘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詩的인 image들을 높은 수준의 예술가적 手法으로 보여 주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감상적인 경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에 生動感을 주는 rythme의 調和와 語源學의 根源에서 具體的이고 詩的인 일차적(sens premier) 意義를 찾아서 使用하는 語彙들은 作品의 美學的인 높은 수준을 느끼게 한다.

15) Ibid. pp. 123, 124.

16) " p. 87.

17) " p. 147.

Ⅵ. 結 論

이제까지 우리는 Candien français가 하나의 典型(type)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으며 프랑스인과 區別되는 그들의 文學은 어떠한 것인가를, 주로 그 作品들이 갖는 社會性을 着眼點으로 하여 考察하여 왔다. Philippe-Aubert de Gaspé의 激情, Maria Chapdelaine의 執念 및 Menaud의 忿怒는 모두 한 가닥의 脈絡을 이루며 綿綿히 내려오는 하나의 뚜렷한 抗抵意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의 저항은 民族의 感情에서 북마치는 民族투쟁사적 저항이며, 經濟的인 무기력을 호도하려는 劣等意識에의 저항이며 또한 浪漫的 저항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는 Canadien français의 文學은 우선 하나의 抵抗文學이라는 데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與件들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日帝下에서의 韓感文學의 面面을 생각해 하고 우리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參 考 文 獻

- 1) Blanchard, Raoul, Le Canada français, Paris, Payard, 1960.
- 2) Groulx, Le Chanoine Lionel, Histoire du Canada français depuis la découverte 4t., Montréal, L'Action nationale, 1950.
- 3) Groulx, Le Chanoine Lionel, La naissance d'une race, Montréal, Librairie de l'action canadienne-française, 1960.
- 4) Kalm, Pierre, Voyage dans l'Amérique du Nord, Montréal, Berthiaume, 1960.
- 5) Brunet, Berthelo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canadienne française, Montréal, Arbre, 1946.
- 6) De Gaspé, Philippe-Aubert, Les anciens Canadiens, Montréal, Fides, 1967.
- 7) Hémon, Louis, Maria Chapdelaine, Paris, Bernard Grasset, 1954.
- 8) Savard, Mgr Félix-Antoine, Menaud, maître-draveur, Montréal, Fides, 1963.
- 9) Viatte, Auguste, Histoire littéraire de l'Amérique française, Paris,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0.

